

종합·해설

# 민주당 “모바일 투표, 이거 계속 해야하나”

## “민심·당심 역행” 주장...개선론 고개 문재인 측 “더 확대해야” 고수 의견

민주당 내부에 모바일 투표 제도를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모바일 투표는 민주당이 도입, 성공을 거둬서 자랑하는 완전국민경선제의 핵심적 방법. 하지만, 그동안 숱한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당 내외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6·9 전당대회에서도 지역 경선에서 패배를 거듭하던 이해찬 대표가 막판 모바일 투표의 압도적 표차 때문에 당선되면서 모바일 투표가 오히려 민심과 당심을 역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특히, 그동안 모바일 투표를 반대하던 당 혁신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당내에서 마음 놓고 비판을 하지 않았지만 원로 진보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혹독한 평을 내리면서 민주당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도 모바일 투표제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또 추미에 대선후보경선준비기획단장도 모바일 투표에 대해 ‘순’을 봐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어 모바일 투표를 둘러싼 당내 논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대선후보경선 준비기획단 논의 등의 과정에서 모바일 투표에 대한 수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순학규 상임고문 측은 “모바일 투표가 동원·조직선거로 변

질된다는 것이 지난 6·9 전당대회에서 입증됐다”며 “자칫 모바일 투표가 잘못 운영되면 흥행도 안 되면서 민심만 왜곡하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모바일 투표에 아예 실시하지 않는 게 좋다”며 “또 일반 국민 모바일 투표를 도입한다면 가중치를 낮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 측은 “모바일 투표가 민주당의 브랜드가 됐지만 부작용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며 “보안 논의가 이뤄지면 당연히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상임고문 측은 “모바일 투표 자체는 찬성하지만, 민심 왜곡 문제는 보완해야 한다”며 “역선택을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고문 측은 “보편적 복지·경제민주화·한반도 평화 등 민주당 강령을 지지한다는 서약을 하고

소액을 납부한 뒤 참여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친노(친노무현) 세력의 막강한 조직력을 갖춘 문재인 상임고문 측은 “선거인단이 거대해지면 모바일 투표에 왜곡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그 결과가 민심이자 민의”라며 모바일 투표 확대 입장을 펴고 있다.

이에 앞서 원로 진보학자인 최장집 교수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민생포럼 정립기념 초청강연에서 모바일 투표에 대해 “나쁜 의미의 혁명적 변화”이라며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제와 친숙한 그룹의 정치적 특성과 과다대표의 문제가 있다. 그들이 일반시민 전반을 대표하지 못하며,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민주당이 대표하고자 하는 사회경제적 저변계층이나 소외계층을 대표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지도부 군부대 방문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지도부가 21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전방대를 방문, 지휘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대선후보 선출 새누리 8월말·민주 9월말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가 8월말, 민주당 대선 후보는 9월말에 각각 선출될 예정이다.

아직 경선 물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동적 부분도 없지 않지만 9월 말에는 여야 대선 후보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12월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투표를 오는 8월19일 실시하고, 다음날인 20일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실시하는 계획 하에 경선을 준비하기로 했다.

당 경선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당내 논란이 되고 있는 경선 물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현행 당헌·당규에 의한 경선 절차를 실무적으로 밟아나가기로 했다.

이후 새누리당 경선관리위는 21일 중앙선관위에 경선위탁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경선관리 업무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할 경우, 경선일 최소 59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중

안선관위 규정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9월말까지 선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1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종전 대선 180일 전까지 하도록 돼 있는 후보 선출을 80일 전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민주당의 대선후보 선출기한은 기존 6월22일에서 추석 당일인 9월30일로 늦춰지게 됐다.

추미에 대선후보경선준비기획단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획단 1차 회의 결과, 런던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인

7월 25일까지 1차 목표로 경선 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 달 25일까지 경선 안을 도출한 뒤, 이르면 8월 중순, 늦어도 9월 초에 대선 후보 경선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7월부터 ‘대선주자 워크숍’의 정례화를 통해 경선물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철수 원장과의 단일화 방안 등도 논의해가기로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손학규 “문재인, 대선 승리할 수 없다”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21일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상임고문은 승리할 수 없다”며 “이는 같은 방법으로 두 번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방식이 이번에도 또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때 부산·경남지역에서 더 많은 표를 끌고 와야 이긴다는 것이었지만, 이번 대선에선 중간층, 특히 수도권의 중간층을 얼마나 끌어

오느냐의 싸움”이라며 “그것이 지난 해 4·27 재보선에서의 승리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두관 경남도지사에 대해선 “이장에서 군수, 도지사를 한 소중환 자신이지만 문재인 의원의 대체자로 나타난 경향이 있다”며 “지금문은 문 의원의 대체자가 아니라 민주당의 미래 지도자로 키워야 할 재목”이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정세균 “박근혜가 오히려 쉬운 상대”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민주당 정세균 상임고문은 21일 여론의 유류대권후보인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 “쉬운 상대일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전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쉬운 상대일 수도 있다”며 “그분은 장점과 약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분으로 새누리당 대선 후보 가운데 꼭 그분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결정적일 때 어떤 이슈가 어떻게 부각되고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등락이 심하다”며 “기본적으로 박 전 위원장이 어떻게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지 신기하다”면서 “지난 4·11 총선 때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높았는데,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위기를 목전에 둔 대한민국에 과연 어떤 대통령이 필요한가를 잘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이종형기자 golee@

### 정가 라운지

#### 정운찬 “여 대선후보로 거론말라”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21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떤 당에도 입당한 적이 없고 새누리당과는 철학이 같지 않다”며 “사람들이 자꾸 저를 여론의 잠재적 잠룡인가, 대선 후보로 거론하는데 기분이 썩 좋지 않다. 앞으로 여당 후보로 거론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정치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지도 않고 동반 성장을 위해서만 일하고 싶은데 여당이건, 야당이건 누구든지 저의 뜻과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동반성장에 대해 논의하고 도움을 주고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 김동철 “도박공화국 오명 벗어나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21일 무분별한 사행산업의 확산을 막기 위해 1인당 구매한도를 제한하고 주책가에 장외발매소 설치 등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한국마사회법·경원 및 경정법·국민체육진흥법 등 사행산업 관련 4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사행산업 확산은 자살과 범죄로 연결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하게 된다”며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 우리나라가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 우윤근 “호남 도움주는 후보 지지”

민주당 우윤근 전남도당 위원장은 “광주·전남에 도움이 되는 대권 주자를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21일 전남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가운데 지지자가 있는 나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선거 당시에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표를 뽐낼 주고나면 당선 후에는 ‘인의 장막’에 가려 유아무아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표적으로 노무현정부 때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남도와 일선 시·군, 의회 등과 사전에 협의해 7월 중으로 대권 후보들에게 제시할 광주·전남의 구체적인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송경중 “수원초 통학군 조정 철칙을”

광주시의회 송경중 의원은 21일 광주시의회에서 수원초교 학부모와 시교육청 공무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수원초교 통학군 조정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지구 수완8초교가 신설됨에 따라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수원초교 통학군 조정계획은 신설 아파트 입주에 따른 학생 인원의 변화 추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과밀학급 해소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학거리도 두 배 가량 늘어나는 등 여러가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경매투자

- ▶실전경매 배유면서 입찰에 참여하여 수익 내실 분
- ▶4명한정 / 주1회 2시간 3개월 완성
- ▶임장활동비 / 교재비 등 별도 회비없음
- ▶특수물건만 전문투자
- ▶공동투자 가능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 부실채권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각종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 미래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무조건적 시공상담  
유시름,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거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 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